

보도 일시	2022. 12. 12.(월) 16:00	배포 일시	2022. 12. 12.(월) 16:00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 이정현 (044-203-2811)
		담당자	사무관 조상훈 (044-203-2812)

외국인 관광객 3,000만 명 시대,

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’

- 관광에 한국문화(케이-컬처)의 매력을 더한 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(‘23-‘27)’ 발표
-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조기회복 위한 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 선포

정부는 12월 12일(월) 오후 2시 30분, 서울 ‘하이커 그라운드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(2023~2027)’을 심의·의결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관,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,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▲ 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 선포, ▲ 국무총리 모두발언, ▲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박보균 장관의 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[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]’ 발표, ▲ 민간의 사례 발표, ▲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.

【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’ 발표 주요 내용】

한국문화(케이-컬처) 매력을 무기로,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,750만 명 대비 6%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.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.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, 형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

재정비하며,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‘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’을 수립했다.

이번 기본계획에서는 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’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. 정부는 ▲ 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, ▲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·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, ▲ 민관 협력·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(케이)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.

박보균 장관은 “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’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’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’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,000만 명,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

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 추진

한국문화(케이-컬처)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. 2023-2024년을 ‘한국방문의 해’로 선포하고, ‘케이-컬처 이벤트 100선’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*와 연계해 365일 케이-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.

* ▲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, ▲ 인천 케이팝(INK) 콘서트, 원아시아페스티벌, ▲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, ▲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, ▲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

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의 본국, 한국으로’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,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‘케이-관광 로드쇼’를 개최한다. 2~3위 시장인 일본·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*을 추진하고,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. 한국문화(케이-컬처)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‘한국음악(케이-뮤직)’, ‘한식(케이

-푸드)'을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.

*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, 대만 온라인 여행사(OTA)공동 계절테마여행 (봄꽃 등) 홍보 등

** '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: 1억 5,660만 명(116개국/한국국제교류재단)

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,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

예술·음식 등 케이-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**명인·명사와의 만남**, 고급 한식 체험 등 **한국(케이) 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**을 개발한다. 특히,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**골프선수·대회·아카데미**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(윈포인트 레슨, 공동티샷, 대회관람 및 체험 등)을 새롭게 확대·개발한다.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(Private Jet) 전용 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.

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문화(케이-컬처)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**고품격 관광콘텐츠**를 확충한다.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**청와대를 중심으로** 경복궁, 광화문, 북촌·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(스토리텔링)로 엮어 **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***로 조성한다.

* ▲ 문화예술테마(청와대 공연/전시+ 현대미술관+ 북촌·인사동 갤러리+ 세종문화회관), ▲ 자연생태테마(녹지원과 대정원+ 북악산 한양도성+ 남산), ▲ 역사전통테마(청와대 본관과 관저+ 북촌 한옥마을+ 고궁박물관+ 경복궁+ 통인시장)

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

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,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.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, 베트남·필리핀·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**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**를 신설한다. '일괄 단체심사' 도입,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.

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('22년 약 3,600개소 → '27년 4,600개소) 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.

‘워케이션 비자’, 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 연수비자’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

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를 마련한다. ‘워케이션* 비자’ (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)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~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.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(케이)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‘한국문화(케이-컬처) 연수 비자’도 신설한다.

* 일과 휴가 (WORK+ VACATION)의 합성어로, 원격근무와 여행의 결합

②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

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

형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,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.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.

*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(100만 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): (4~5성 호텔, 콘도) 2.62 / (일반 숙박시설) 1.16

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. 전문직 취업비자(E-7)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, 유학생(D-2)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(학사대상 현행 주 10~25시간→30시간)한다.

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. 향후 유사한 재난·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.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‘기업 휴지보험’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.

'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,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

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'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. 국내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('22년 8개소→'27년 14개소)하고,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('22년 1개소/싱가포르→'27년 10개소)를 확충해 세계적인 (글로벌)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.

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 (바우처) 지원을 확대('22년 147개 업체 →'27년까지 총 1,000개 업체)하고,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.

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

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*을 높이고,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 (비대면 협진)제도를 활성화한다.

*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: 비자 전자신청,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(직계가족→사촌 이내)

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'웰니스 관광*' 시장을 육성한다. 의료 치료 후 스파·식단 등이 연계되는 '웰니스·의료 관광 융·복합 클러스터' 조성('23년 6개소 선정), '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' 선정('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)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·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.

* 웰빙(Well-being), 행복(Happiness), 운동(Fitness)의 합성어로 몸·마음의 치유·회복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

* 웰니스관광 시장은 '25년까지 연평균 20.9%(2021, Global Wellness Institute) 성장 예상

국제회의 복합지구*를 현재 5개소에서 '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,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

산업을 육성한다. 문화·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 (코리아 유니크 베뉴**/'22년 39개소→'27년 50개소)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.

- *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▲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·장비 개선,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,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(관광기금), ▲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
- ** 코리아 유니크 베뉴: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(한국의 집, 남이섬 등)

③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

국내여행을 촉진하는 '여행이음카드'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

정부, 지자체,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,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 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'여행이음카드'를 도입('24년)해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.

캠핑관광,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

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,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*한다.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('23년 2개소 → '27년 10개소)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(대한민국 구석구석/~'27년, 5백 건)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.

- * 공유수면법(바닷가), 도농교류법(농어촌체험휴양마을) 개정 등 추진

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친화(프렌들리) 신(新)시장 육성

장애인·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,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'열린 관광지'를 지속 확대('22년 누적 112개소→'27년 누적 250개소)한다.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·식당·카페 등 관광·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,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(新)시장을 육성한다.

- * 열린관광지: 장애인, 고령자, 영유아 동반 가족,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

④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

여행친화형 근무제(워케이션),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

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,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‘여행친화형 근무제(워케이션)’ 확산을 지원한다.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(매칭),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등을 지원한다.

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(생활관광),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. 관광객을 대상으로 ▲ 지역 관광지·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*을 발급하고, ▲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**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,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.

*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, 특산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 ('22년 평창·옥천 시범사업 31,380명 발급, '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)

** ▲ 농촌에서 살아보기, 농촌유학(농식품부), ▲ 청년마을만들기(행안부)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('24년)

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‘한국(케이) 관광 휴양벨트’ 조성 추진

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,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.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*,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, 예술섬,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‘한국(케이) 관광 휴양벨트’를 구축('24~'33년)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.

* 부산·광주·울산·전남·경남 대상 추진('23년 개발계획 수립)

고유의 자연·생태계·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 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*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.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, 마을경관

개선을 지원하고 ‘가고 싶은 한국(케이) 관광 섬’으로 육성한다.

* ▲ (문체부)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, ▲ (해수부)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, 대합실·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, ▲ (행안부) 섬 정주환경 개선 등

【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 선포식 개최】

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,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,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,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,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,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한덕수 국무총리는 “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.”라며, “우리 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,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‘가고 싶은 대한민국’, ‘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’을 만들어 갈 것”을 당부했다.

붙임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요

따로 붙임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(2023-2027)
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정현 (044-203-2811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훈 (044-203-2812)
<공동>	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김유미 (044-200-2328)
		담당자	사무관	임지영 (044-200-2329)
<공동>	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	책임자	과장	문경호 (044-215-46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철환 (044-215-4612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	책임자	과장	최정미 (044-201-1581)
		담당자	사무관	장미진 (044-201-1592)
<공동>	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	책임자	과장	변루나 (044-202-2980)
		담당자	사무관	최성필 (044-202-2984)
<공동>	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	책임자	과장	김배성 (044-201-3201)
		담당자	사무관	권지현 (044-201-3203)
<공동>	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책임자	과장	권영규 (044-200-5250)
		담당자	서기관	최영인 (044-200-5251)
<공동>	외교부 유네스코과	책임자	과장	이주원 (044-2100-7554)
		담당자	사무관	권인화 (044-2100-7558)
<공동>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장	이승현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호 (02-2110-4059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이순배 (044-204-7420)
		담당자	사무관	박 현 (044-204-7425)
<공동>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장	홍경의 (044-202-7026)
		담당자	주무관	조규석 (044-202-7029)
<공동>	문화재청 활용정책과	책임자	과장	최영호 (042-481-4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순미 (042-481-4744)
<공동>	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	책임자	과장	조영희 (042-481-4210)
		담당자	사무관	송광현 (042-481-8868)

□ **개최 개요**

- (일시) '22. 12. 12.(월) 14:30 ~ 16:00 (90분)
- (장소) 서울 '하이커 그라운드'
- (안건)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[‘케이(K)-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’]

□ **참석 : 정부, 유관기관, 관광업계, 민간 등 30명 내외**

정부	▲ 국무총리(의장) ▲ 문체부장관(간사) ▲ 국무조정실장 ▲ 기재·법무·행안·복지·해수부 차관 등
민간	▲ 글림미디어 윤호기 대표 ▲ DOJC코리아 최윤희 대표 ▲ 웰컴대학로 이재원 총감독 ▲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 ▲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형조 대표이사 ▲ 통영이랑 조민철 대표 ▲ 양양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▲ (주)이즈피엠피 한신자 대표 ▲ 호텔롯데 안세진 대표이사 ▲ (주)여행지기 함수일 대표이사 ▲ H2O호스피탈리티 이용희 대표
유관기관	▲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운영호 회장 ▲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▲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 ▲ 한국마이스협회 김춘추 회장 ▲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 ▲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

※ **국가관광전략회의**

- **(근거)** 「관광기본법」 제16조 및 「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령, '17. 12. 19. 제정)
- **(구성)** 의장(국무총리) 및 정부위원(13개 중앙행정기관*의 장)
 - * 기재·교육·외교·법무·행안·문체·농림·복지·환경·국토·해수·중기부, 국무조정실
 - 필요시 부처·민간전문가 등 참석 및 차관조정회의 개최 가능
- **(기능)** 관광진흥 주요시책 수립, 부처 간 쟁점사항 등 심의·조정
- **(운영)** 연 2회, 반기별 개최 원칙, 개최 시기 조정 가능(규정 제6조)